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당신입니다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Q 올해 가장 인상 깊은 캠페인은 무엇이었나요?

동아시아 지부에서 진행한 플라스틱 캠페인이었습니다.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태풍을 뚫고 홍콩에서 가오슝을 거쳐 부산까지 항해했습니다. 선장 헤티는 "바람이 우리를 부산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농담을 하더군요. 이는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부산 INC5 현장에 200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홍콩과 타이베이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플라스틱 브랜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의 요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강력한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 속에서도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지지하는 등 협약 초안 진전에 기여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미래가 결코 멀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Q 왜 환경 보호 캠페인은 오래 걸리나요?

의미 있는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를 키우듯, 연구나 교육, 캠페인 활동은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중의 인식을 바꾸거나 정부나 기업처럼 거대 시스템에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자님의 정기 후원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후원으로 그린피스는 흔들림 없이 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물을 주는 것처럼, 바로 당신의 후원이 지속가능한 변화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Q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그린피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년에는 기후 정책, 해양 보호, 강력한 플라스틱 조약 등 전 세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셨고, 소중한 보호지역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알려 정책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양조약을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각종 연구 보고서와 시민참여 활동 및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행동으로 이끄는 데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오랫동안 그린피스에서 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환경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시민의 힘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린피스는 '독립성'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1971년 핵실험을 막기 위한 첫 항해 이후, 그린피스는 항상 행동하는 주체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Q 후원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현재 그린피스 미국 사무소는 석유 기업들의 법적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시도 앞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후원자님의 후원, 자원봉사, 메시지 공유 하나하나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후원과 응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린피스가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지치지 않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더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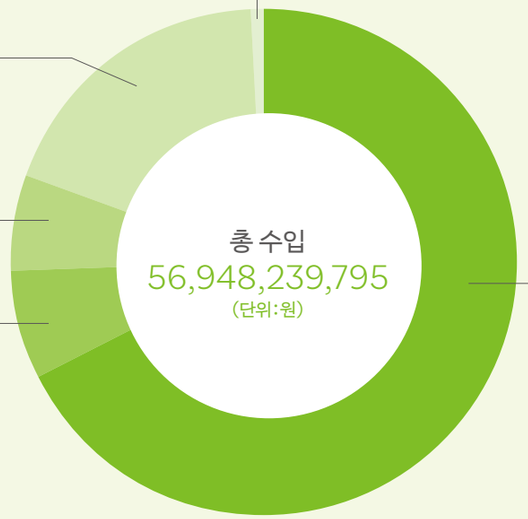
PS. 책 마지막에 있는 설문조사에 후원자님의 생각을 보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캠페인을 만들고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 36.1%(10,830원)
- 해양보호 7.7%(2,295원)
- 산림 보호 8.6%(2,588원)
- 플라스틱 / 건강한 삶 13.6%(4,084원)
- 교차캠페인 7.6%(2,275원)
-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홍보 15.9%(4,774원)
- 지역사회 교육, 비폭력 직접행동, 자원봉사 3.0%(912원)
- 정책, 비즈니스 및 과학 연구 7.5%(2,242원)

© Kevin McElvaney / Greenpeace

2024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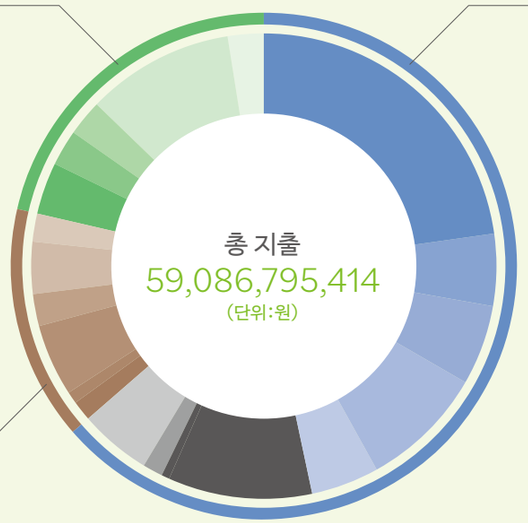
이자 및 기타
332,388,278(0.6%)

그린피스 국제본부 보조금
10,728,976,542 (18.8%)

재단 및 신탁, 고액 후원자 후원금
3,353,300,073(5.9%)

신규 후원자 후원금
4,106,890,960(7.2%)

기존 후원자 후원금
38,426,683,941(67.5%)



모금 및 후원자 관리
12,538,714,535(21.3%)

- 후원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2,167,164,322(3.7%)
- 후원자 관리 및 개발 1,414,863,473(2.4%)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1,449,749,260(2.5%)
- 신규 후원자 모집 6,020,656,396(10.2%)
-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1,486,281,08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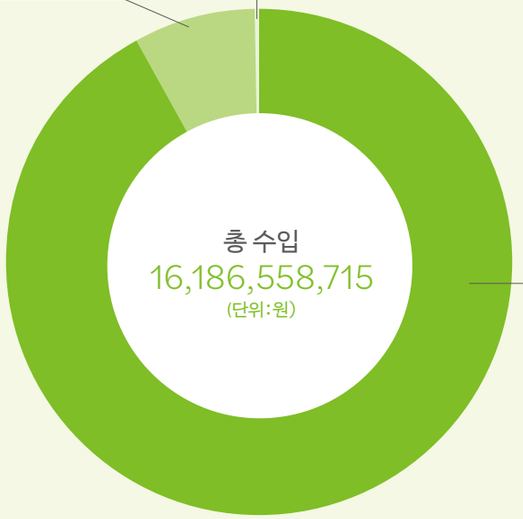
조직 관리
8,974,306,696(15.1%)

- 매니저 관리 및 경영 901,667,766(1.5%)
- 법률 자문 429,948,996(0.7%)
- 인사 관리 2,964,647,663(5.0%)
- 행정 업무 1,433,445,026(2.4%)
- 재무 관리 2,133,326,271(3.6%)
- IT 지원 1,111,270,974(1.9%)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37,573,774,182(63.6%)

- 기후에너지 13,563,840,526(23.0%)
- 해양 보호 2,873,917,404(4.9%)
- 산림 보호 3,240,998,424(5.5%)
- 건강한 삶/ 플라스틱 5,115,183,655(8.7%)
- 기타 교차 캠페인 2,849,446,934(4.8%)
-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6,318,603,795(10.7%)
-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803,385,509(1.3%)
- 정책, 사업 및 과학연구 2,808,397,93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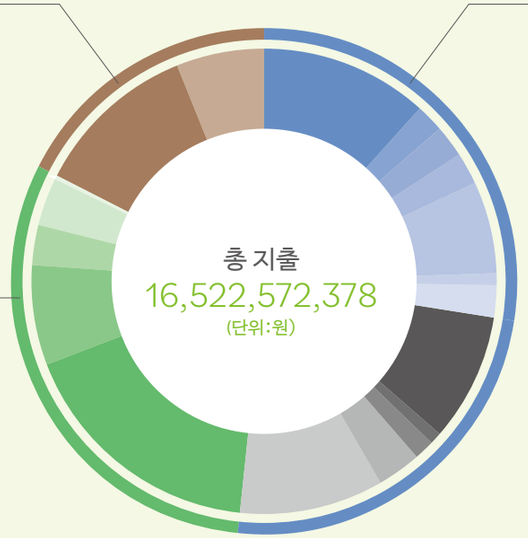
2024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이자 및 기타
26,837,602(0.2%)

신규 후원자 후원금
1,250,454,460(7.7%)

기존 후원자 후원금
14,909,266,653(92.1%)



조직관리, 기타
2,835,136,455(17.2%)

- 조직관리(재무관리, IT지원, 인사관리, 법률 자문, 직원 개발 등) 1,842,587,060(11.2%)
- 기타(이자비용 및 환차손 등) 992,549,395(6.0%)

모금 및 후원자 관리
5,109,601,338(30.9%)

- 신규 후원자 모집 2,898,463,411(17.5%)
- 후원자 관리 및 개발 1,161,355,687(7.0%)
-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관리 448,884,478(2.7%)
- 모금팀 직원 및 코디네이션 521,976,106(3.2%)
- 고액 후원자, 유산기부 프로그램 78,921,656(0.5%)

캠페인 및 캠페인 지원
8,577,834,585(51.9%)

- 기후에너지 1,938,671,595(11.7%)
- 해양 보호 및 극지방 315,865,840(1.9%)
- 생물다양성 378,043,099(2.3%)
- 플라스틱, 독성물질 제거 382,725,442(2.3%)
- 국제 그린피스 캠페인 지원 1,040,513,205(6.3%)
- 기타 교차 캠페인 156,400,332(0.9%)
- 캠페인 코디네이션 368,039,955(2.2%)
- 캠페인 언론 홍보 1,478,450,959(8.9%)
- 환경 정보 홍보 및 시민 교육 121,853,270(0.7%)
- 비폭력 직접행동 및 자원봉사 관리 226,288,883(1.4%)
-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529,684,721(3.2%)
- 서포터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1,641,297,284(9.9%)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기후에너지

총액 13,563,840,526원

에너지 솔루션

2,086,248,697원

서울

웰빙 이코노미(Wellbeing Economy)

- 2024년에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경제 규모만을 측정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며, 삶의 질, 불평등, 기후 정의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 그린피스는 설문조사, 인터뷰, 웹툰 협업, 사진 행사 등을 통해 성장보다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웰빙 예산'을 촉구했습니다. 9월에는 유엔(UN)도 GDP를 대체할 지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그린피스의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 과잉소비와 환경 파괴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보다 책임 있는 광고 문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 서울 사무소의 재생에너지 캠페인팀과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팀은 경기도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 포럼 진행, 여주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탄소 도시생활을 위한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경기도에 제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사업 단지를 용인에 조성하고, 여기에 LNG 발전소 6기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응해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가 건강 피해를 우려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결과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용인시와 경기도에 전달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경우 환경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 조사 결과, 서울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배에 달하는 감축 효과가 가능하고, 연간 약 15조 7천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보고서는 기업과 정치권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탄소중립화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 기업의 기후 대응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와의 토론회, 기자회견, 정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강훈식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11월에 재발의하며 정책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핵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함께 핵에너지가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 체르노빌 현장 조사 및 우크라이나 관련 프로젝트 등 독립적인 과학 연구와 방사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 국내 핵 재난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그린피스 방사선 대응 및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1,184,351,560원

서울

서울 사무소는 2024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이에 커지는 위험에 대응하고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후대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재난 대응 캠페인

- 리서치팀과 협력해 폭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한국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을 알렸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연관된 산불 조사를 통해, 산불 대응에 대한 국내 담론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재난 직후 긴급 대응만 있고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주목해, 재난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피해지역에서 정서적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공동 설계했습니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 약 4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교육을 받은 시민대응단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인 강릉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에서 현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대응단은 지역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 사례를 기록하고, 복구 작업에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회복과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실시간 디지털 소통

- 기후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알리는 디지털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해 SNS 채널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의 원인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미흡한 기후 대응의 결과임을 알리고,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 2024년, 동아시아 지부는 기후 위기를 대중의 일상과 관심사에 연결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 폭염 스트레스, 적설량 변화와 같은 일상적 데이터를 활용해 환경 변화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만의 태풍 시기에는 농작물 피해 사례를 통해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데이터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베이징

중국 내 이상기후 현상을 언론 보도를 통해 조명하고, 기후위기가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식량 생산, 생계와 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후위기의 위협을 알렸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기후위기에 대응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 항저우에서 3일간 열린 '오리는 먼저 안다(Duck Knows First)' 문화제에서 12명의 기후활동가의 사진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60명의 기후 액티비스트가 행사에 참여했으며 40개 이상의 언론 매체가 100건이 넘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보드게임 컨벤션에서는 3일간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어 인플루언서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했고, 항저우에서는 기후재난 피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2일간 진행했습니다.

탈탄소 교통

2,021,092,468원

서울

친환경 자동차

- 서울 사무소는 현대자동차와 총 다섯 차례 전략 미팅을 갖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는 7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전동화' 분류를 수정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린워싱 문제를 지적하고 오피니언 칼럼 기고, 국내 최대 영향력 있는 자동차 채널과 협업한 영상 제작(조회수 33만 회, 댓글 2,700개) 등 미디어와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 또한 현대차의 인도 주식상장 시기에 그린피스 인도 사무소와 협력해,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와 현대차의 탈탄소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 '그린 교통 광고 공모전'을 개최해 총 118개 팀, 155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공모전의 수상작은 서울 주요 지역에 게재되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 서울시의회와 의원들과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의 미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저탄소 도시생활 프로젝트

- 현장 전문가들과 협업해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 토요타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의 회사로, 토요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일본 전체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린피스는 토요타 차량의 탈탄소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안전성과 편의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교통 모델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미국에서 2027년부터 시행될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주요 7개 자동차 생산 기업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분석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생산 계획으로는 어느 기업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베이징 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 분야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 세계 시장에 판매되는 중국 브랜드 차량 6종의 배출 기준을 분석한 뒤, 해당 브랜드와 비공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두 번째로 큰 자동차 박람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부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탄소중립운송

- 물류 업계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위험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해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장기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가 친환경 운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석탄, 수질 오염 및 대기 오염

71,097,252원

동아시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깨끗한 공기 유닛은 개발도상국의 그린피스 지부와 함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유닛은 에너지, 산업, 폐기물 및 운송 부문의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주요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 2024년 3월 아프리카 전역의 주요 대기 오염원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림, 어업, 환경 포트폴리오 위원회에 초청받아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대기질 관리를 담당하는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2024년 2월 델리의 대기 오염 실태를 담은 브리핑에서 델리의 고질적인 대기오염에 교통수단이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건강 및 환경적 영향, 대기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해결책을 담았습니다.
- 2024년 10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도냐 후아나 매립지의 메탄 발생, 포집 및 배출량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실한 폐기물 관리와 메탄 배출의 관계를 밝히고, 폐기물 관리를 기후 대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메탄 배출원입니다.
- 2024년 12월 <인도 북부를 넘어: 인도 7개 주요 도시의 이산화질소 오염과 건강 위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델리를 제외한 인도 7개 도시의 독성 이산화질소 가스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인구가 많고 인도에서 가장 대기질이 나쁘지만 대중의 관심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산화질소 배출은 운송 및 연료 연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 녹색 투자

2,377,045,206원

베이징

- 그린피스 베를린 사무소의 지원으로, 독일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 중국의 탈석탄 가속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린피스는 독일의 주요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탈석탄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핵심 메신저로서 역할을 활용해 중국 정부와의 만남에서 그린피스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내부 변화를 이끄는 외부의 압력'이라는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정부 및 정책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자 22명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COP29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간 동안 그린피스는 중국의 리더십을 이끌어내고 언론의 관심을 모으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파트너들과 함께 "청년 행동 세계의 미래",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 참여", "기후변화를 위한 중국의 시민사회 단체" 등 세 가지 중요 부대 행사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후행동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베이징의 최대 번화가에서 그린피스의 기후행동 및 친환경 에너지 다큐멘터리들을 상영했습니다. 그 결과 COP29기간 동안 5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온라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탄소 개발 정책

- 베이징 공과대학교와 함께 태양광 발전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단위 태양광 발전 시범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둥성과 장쑤성이 지역 태양광 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중국 외교 정책 연구소와 협력해 외교 학자들에게 중국과 유럽연합간의 기후 및 에너지 협력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와 협력해, 중국과 유럽연합의 청정 에너지 협력 기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중국에서 새로 승인된 모든 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친환경 전환 금융

- 중국의 생태환경부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친환경 및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탄소 집약적 수출 산업을 대신할 모델로 여러 성공적인 산업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녹색 금융 모니터 및 일련의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와 언론, 의사 결정권자에게 최신 정책 진행 상황과 업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중국의 저탄소 개발 목표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 기후행동 평가

- 중국 생태환경부 정책경제연구센터와 협력해, 혁신적인 대중 기후행동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대중 기후행동의 범위를 정책 영향,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촉구, 사회적 규범 변화까지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기후 행동에 참여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방 정부에 정량화 가능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 시민 참여 활동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촉진했습니다.

청소년 기후 행동

- 청소년들에게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 정점(Peak carbon) 문제를 알리기 위해, 중국 통신대학교와 협력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인기 인플루언서와의 협력, 환경 전문가 인터뷰 콘텐츠 제작, 친환경 강연과 세미나 개최, 환경 다큐멘터리 상영, 고래보호 공익 광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부터 옥외 광고 스크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채널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중국 해외 에너지 투자, 국가 에너지 관리국, 생태 환경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JETP* 및 ETM**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주요 언론에 폭넓게 보도되었습니다.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에너지 전환 모델(Energy Transition Model)
- 전 국가에너지국 부국장, 중국에너지전환협회 회장 등 저명한 전문가들과 중국에너지투자공사, 중국화전, 국가전력투자공사 등 주요 기업의 고위 임원들을 세미나에 초대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 석탄발전 자산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 중국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업계 전문가들과 국유 기업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경제 전문지 '차이징'에도 실리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네 차례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법적 프레임워크, 사례 분석, 다양한 금융 수단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다뤘습니다.

기업 대상 기후 캠페인 630,544,078원

베이징

REpowerICT프로젝트: 기술,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난 7월에는 탄소중립과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거대 IT 기업들을 모니터링한 <클린 클라우드 202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책 결정자와 업계 전문가,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 PDD 홀딩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트 테무(Temu)를 대상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해, 1만 명 이상 전 세계 시민들이 테무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특히 공급망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 66만 6천 회 이상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한 '생명의 바다'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해 43만 건 이상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 75만 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ProtectWhalesChallenge(고래 보호 챌린지) 해시태그 챌린지를 시작해 #ProtectTheOceans(바다를 지켜요) 해시태그와 함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 친환경 경제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도구는 고급 분석과 기법을 제공해 새로운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텔럼 미디어와 샤오홍슈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더 많은 청중에게 캠페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플랫폼4군(P4G)

- 중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활용해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에는 이커머스와 차량호출 서비스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이커머스: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국의 풀뿌리 NGO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알리바바와 현지 NGO가 만나 플랫폼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 대해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현지 NGO가 외부 미디어 활동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미디어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어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 차량 호출 서비스: 자가용 대비 차량 공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 연구 보고서를 퉁지대학교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가 함께 실렸습니다.

동아시아

- 인공지능(AI) 부문의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공급 업체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합니다.
- 동아시아 지역 전자제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생에너지 도입시 비용적인 이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에 힘입어, 대만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융

- 중국 자산운용사들의 기후 대응 성과를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다양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자산 소유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링크드인 캠페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베이징에서 개최한 전환금융 세미나를 통해 업계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중국 지속가능투자포럼 연례회의에서 그린피스가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 홍콩의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홍콩 녹색 및 지속가능 금융 공동조정기구와 홍콩 주요 규제기관의 대표 11명이 참석한 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새롭게 도입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 맞추어 볼 때 기업들의 공시 수준이 상당히 부족함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730,312,812원

타이베이

'기후 인플레이션'이 대만 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물가 상승과 건강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해 밝히고 정부와 기업에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의 기후 대응 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 전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만 국영전력회사인 타이파워에 되팔아 이익을 챙긴 3개 기업을 발견해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오염으로 수익을 얻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8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후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난 10년 간 중추절 식료품 물가가 40% 가까이 상승한 것은 부분적으로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투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연말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정부에 강조했습니다.

도시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457,945,511원

홍콩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인식을 높였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기후 정책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녹색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 지역의 청년 환경단체인 카본케어 이노랩과 협력해 홍콩의 녹색 금융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그린워싱을 막는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포함해 홍콩 녹색금융 시스템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홍콩이 싱가포르나 도쿄에 비해 녹색금융에 뒤처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기후변화와 이상기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대중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4편의 개인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 이상기후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이상기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약 40%는 기후위기로 인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홍콩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리고 기후위기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 그린피스는 2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후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적응 전략 강화를 촉구하는 기후 정책 제안서를 홍콩 행정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대중 설문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에 대비한 적응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홍콩 증권거래소의 새로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정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장 기업의 50% 이상이 탄소배출 데이터를 일관성 없이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규제의 허점을 지적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다 강력한 공시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대책 2,286,430,604원

일본

- 도쿄시가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그린피스는 이를 가나가와 현으로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가와 현이 해당 내용을 공식 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가나가와현에서 무더위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해 단열 보강이 시급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무더운 교실 문제 관련 데이터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직접 교실 내 온도 조사를 진행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지방 의회와 국회에서도 논의 되었고, 그 결과 2024년 고등학교 8곳에 단열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 일본 사무소는 풀뿌리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지역의 환경 정책을 바꾸기 위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의 힘으로 중앙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단열 및 태양광 설치 기준을 지방정부에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의회에 꾸준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 포럼의 출범을 지원했습니다.
- 그린 테이블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이 좀 더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월간 뉴스레터와 온라인 시네마,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연결을 강화하며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의 실천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 시가현, 아오모리현, 나가노현 4구의 지역 시민들과 협력해, 언론을 통해 정부에 기후위기 문제를 알렸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지역에서 존경받는 신사의 주지, 수상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신문 동아리, 지역의 시민 활동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 시가와 아오모리 현에서는 기후변화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으며, 도쿄에서는 일상 속 기후변화를 주제로 예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활동들은 총 152건의 언론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

기후위험 프로젝트

- 기후변화가 중국의 소규모 농가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후과학, 기후 경제학, 농촌 농업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여러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팀은 가계 소득의 변동, 건강 영향, 적응 비용 등 여러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가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수치화하여 보여주고, 보다 시급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조사를 담은 보고서는 2025년 발표됩니다.

탈핵 249,761,349원

동아시아

그린피스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현지 원자력 발전소 모니터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산업, 기후 정책, 지역 차원의 원전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다룬 내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1,469,010,989원

기후정의

- 동남아시아: 기후소송, 정책 홍보,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알렸습니다.
- 필리핀: 12곳 이상의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구호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바탕가스와 리잘 지역에 태양광 시설과 식량,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책임을 요구하는 '누가 지불하는가' 캠페인을 통해, 기후책임법(CLIMA)이 의회 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최소 5명의 새로운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전국 41개 피해지역사회가 기후소송에 참여했으며, 36개 지역사회 시민들은 평화적인 직접행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일로일로 시에서 '일로일로 기후대응 허브 포럼'을 개최해 지역사회, 시민 단체, 지방 정부 등 40여 명과 함께 지역사회 기후 대응 허브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례는 세부와 네그로스, 사마르 주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더 브로큰 시스템즈', '왈히(Walhi)' 등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해 탄소 매매, 니켈 채굴, 잘못된 기후 해결책 뒤에 숨겨진 기득권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5개 지역에서 112명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99% 저항 캠프'를 개최해 풀뿌리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에는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에서 "인도네시아는 팔지 않습니다 : 자유!"라는 50미터 길이의 현수막을 걸고 기후정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태국: 정책 홍보, 지역사회 참여, 미디어 활동을 결합해 기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년 간 64회의 행사를 개최해 5,41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태국 최대 건축 자재 기업 시암 시멘트 그룹에 압력을 가해, 북부 지역 석탄 채굴 계획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 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제(PRTR)와 같은 환경 정책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 동남아시아 지역 협업: 동남아시아 지부는 필리핀의 기후책임법과 유럽, 한국, 노르웨이 등 글로벌 기후소송 및 기후정책 확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필리핀의 40개 이상 피해 지역사회 시민들이 국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다큐멘터리 '정의를 위한 여정',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 박물관, 국제 포럼 등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피해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해양보호

총액 2,873,917,404원

해양 보호 1,194,577,471원

서울

- 300명 이상의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30×30 로드맵> 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발표하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5 UN해양총회에서 심해 채굴 중단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120여 가족이 참여한 세계 해양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대형 퍼즐을 활용해 해양 보호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상징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행사 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조약 비준을 위한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전 세계 7개 바다를 돌며 촬영한 다큐멘터리 'SEAGNAL 씨그널'을 제작해 바다가 직면한 위기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조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바다가 처한 위기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강력한 증언과 해양 보호를 위한 해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베이징

- 중국의 샤먼 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해양조약과 공해 해양보호구역(MPAs)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국 정부의 조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 EU의 해양보호구역 정책과 이행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폭넓은 주목을 받았으며,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 심해채굴의 위험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해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혹등고래의 이동과 해양보호구역을 주제로 한 온라인 인터랙티브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전문가 강연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불법 어업 및 남획 889,889,384원

타이베이

- 대만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 도입과 법 집행 강화를 통해 업계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조달 방식을 채택해 인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우리의 지속적인 캠페인 이후 '해양보호법'이 입법 절차의 마지막인 3차 심의를 통과하며, 대만 해양생태계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 <장기 어류 모니터링 조사>와 <대만 해양 관광 및 잠재적 생태 핫스팟에 연안 선박 활동이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대만 해양생태계의 현황을 공개하고, 향후 보전 전략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베이징

- 샤먼대학교 및 기타 연구기관의 주요 수산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연안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개선을 위해 '미끼에서 항구까지' 어획물 추적 관리와 효과적인 어업 장비 관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 중국의 어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을 높였습니다.

글로벌 해양 보호 789,450,549원

2025년까지 각국이 해양 보호 목표인 30×30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해양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태국에서 진행된 레인보우 워리어호의 '해양 정의' 캠페인은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과학자, 정부 간의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해양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생태계가 처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 콜롬비아에서 열린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 연안 지역 공동체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들이 지역 주민 주도의 해양 보호 활동과 전통 어업 지식을 국제 무대에서 알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산림보호

총액 3,240,998,424원

산림 및 생물다양성 1,004,661,428원

서울

- 7만5천 헥타르(서울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경제림이 보호지역과 겹쳐 있는 사실을 밝혀낸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민주지산'을 경제림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의 구조적인 정책 실패를 지적한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관리 및 법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포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산림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계속 요구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 산림 복원의 다양한 혜택(생물다양성, 기후, 지역사회 보호)을 저해하는 정책적 공백을 연구하고 중국의 국립공원법, 환경보호법 개정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 최신 산림 복원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지역사회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 <숲 친화적인 캠핑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증정 이벤트를 개최해, 소셜 미디어에서 10만 건 이상 조회를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 시상반나 국제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사진전을 개최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 산림 탄소상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탄소상쇄는 기업이 배출한 탄소를 다른 방식으로 줄이거나 흡수해서 그만큼 상쇄한다는 것으로, 산림을 조성한 후 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고 상쇄량이 과장되거나 허술한 검증, 관리 체계, 허위 크레딧 발행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캠페인 결과, 중국 정부는 불투명한 산림 탄소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산림 보호 2,236,336,996원

- 인도네시아 내 산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민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 시민사회와 함께 산림 훼손, 토지 강탈, 가짜 기후 해결책 뒤에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폭로하고, 바이오연료 및 광산 개발 정책을 조사했습니다.
- 파푸아 지역 원주민의 토지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을 추진해 4,000여 명에게 총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확보해주었고, '텔루수르 따나 파푸아(Telusur Tanah Papua)'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 보호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원주민 리더를 교육하는 '99% 저항 캠프(Resist Camp)'를 열고, #AllEyesOnPapua(모두가 주목하는 파푸아) 캠페인으로 토지 권리 보호와 인식에 힘썼습니다.
- 동남아시아 지부는 파푸아 지역에서 착취적이고 탄소 집약적인 개발, 그리고 소수 재벌 중심의 환경 파괴에 맞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플라스틱

총액 5,115,183,655원

플라스틱 프리 1,255,750,762원

서울

- 지역간의 연대를 통해, 한국이 처음으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공식 인정하고 생산량 감축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참여를 약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AI를 활용해 인기 TV 프로그램 속 플라스틱 사용을 분석한 결과, 방송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용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생물다양성 핵심 지역인 한강 하류 습지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현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진을 진행했으며,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시민들의 얼굴 사진으로 만든 거대한 '눈'모양의 대형 깃발을 아티스트들과 함께 제작해 플라스틱 감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레인보우워리어호의 동아시아 플라스틱 프리 투어를 통해 동아시아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홍콩

- 홍콩의 도시 고형폐기물 요금제(MSW) 시행 보류 및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규제의 제한적 시행에 대응해, 그린피스는 전략적인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와 기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가 일회용 배달 포장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밝혀내, 언론과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플라스틱 고래' 조형물을 설치하고, 여론 조사를 진행해 정부와 기업에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타이베이

- 위성사진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100곳의 쓰레기 처리장이 폐기물로 넘쳐 '쓰레기 산'이 된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 대만 정부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처리에는 17억7천만 대만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는 고작 8천만 대만달러만 지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예산 격차는 약 22배에 달했습니다.
- 가오슝의 린위안 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동아시아 강 유역 플라스틱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13차례에 걸쳐 단수이강과 증문강에서 청소 활동을 진행하며 쓰레기의 종류와 브랜드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 2023년 스타벅스, 털리스, 프론토 등 일본의 주요 카페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편의점 체인을 조사한 결과, 연간 24억 개가 넘는 일회용 음료 용기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전환할 경우 컵 1개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57%, 물 소비는 36%, 화석연료 소비는 62% 줄일 수 있다는 생애주기 분석 결과를 통해, 재사용 시스템의 환경적인 이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플라스틱투어 3,519,066,593원

동아시아

- 환경감시선 레인보우워리어호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을 지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4개 도시를 순회했습니다.
- 각 도시에서 열린 환경감시선 초대 행사에는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였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높였습니다.
- 대만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위해 석유화학 공장 인근에서 퇴적물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 한국의 심형준 감독은 신작 영화 '클리어(CLEAR)'의 일부 장면을 선상에서 촬영해, 플라스틱 감축의 시급성을 더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 4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100건이 넘는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 한국에서는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이 플라스틱 원료 운반선을 대상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서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건강한 삶 340,366,300원

플라스틱 오염 줄이기

- 그린피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사용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강력한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고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태국에서는 농업·식품 대기업 CP 그룹의 지속가능 포장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두 건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CP그룹의 노력이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CP그룹이 의미 있는 감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12개의 지역 커뮤니티 그룹과 함께 '플라스틱 프리 7월(Piknik Bebas Plastik)'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변 정화, 플라스틱 없는 소풍,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향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성

- 전 세계 대규모 육류·유제품 기업들이 배출하는 막대한 메탄가스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글로벌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구 온난화 완화를 위한 생산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 메콩 하류 지역의 옥수수 재배 현황을 조사하여, 사료를 위한 대규모 옥수수 농장이 홍수와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차캠페인

총액 2,849,446,934원

친환경 도시개발

96,107,985원

홍콩

홍콩 정부가 '란타우 투모로우' 매립 사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가 이 사업의 환경적·재정적·사회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민들과 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캠페인의 직접적인 성과입니다.

- 그린피스의 습지 훼손 조사 결과, 이미 78.7 헥타르의 습지가 파괴되었고 북부 대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 최대 587헥타르의 습지가 추가로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10개 환경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신계 사이언스파크 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재정·기후 리스크를 부각하며 사법 심사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이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국가 생태 보전 정책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3주간의 도시계획위원회 대응 캠페인을 통해 2,306명이 청원에 참여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으로 1,000건 이상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전체 의견서의 65%) 또한 관련 워크숍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청회에서 100건 이상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후 커뮤니티 이해관계자 참여

1,727,697,923원

타이베이

기후변화 온라인 학습 플랫폼

- 다양한 교육 영상, 학습 모듈, 게임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작해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2,800여 명의 교사들이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탄소중립 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

- 학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교사 연수 워크숍을 진행하고 온라인 자료를 제공해 교사들의 기후교육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기후변화 교육 회의

- 대만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교육 회의를 개최했으며, 플라스틱 교육 경험이 있는 1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 82개 학교와 협력해 2,5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해 미래 세대의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을 촉진했습니다.

글로벌 교차 캠페인 지원

1,025,641,026원

국제 관리 및 조율

- 국경과 분야를 넘는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운영에 참여해 글로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 지역 지부와 사무소를 아우르는 환경 캠페인을 조율하고, 글로벌 프로젝트의 조정 및 관리를 지원하여 그린피스 글로벌 환경 목표 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글로벌 기후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COP29 등 주요 국제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그린피스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자원 공유 및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의 및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와 함께 '지구를 위한 우마(Ummah for Earth)'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무슬림 커뮤니티의 기후 행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로는 <이슬람 금융과 재생에너지 보고서> 발간과 2024 기후정의캠프(Climate Justice Camp) 개최가 있습니다.

캠페인 지원

총액 9,930,987,238원

1.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6,318,603,795원

캠페인 / 환경 프로젝트 홍보
887,351,414원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21개 환경 프로젝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46명의 커뮤니케이션 스태프가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 미디어와 대중의 문의에 대응하고, 미디어 및 오피니언 리더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 관련 기자 회견을 개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캠페인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환경 이슈 영상 제작,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환경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공유, 교육기관 세미 나 참여, 홍보 자료 발간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구축 / 네트워킹
618,334,578원

- 지역 사회와 협력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3,835,053,849원

- 환경 캠페인 메시지를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원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습니다.
- 해양, 산림, 기후위기 등 지역과 글로벌 환경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과 공동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시장 및 대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의 목표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 및 육성합니다.

환경 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616,018,005원

- 환경 관련 뉴스 보도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심층 분석, 여론 동향 해석, 캠페인 메시지 분석 및 개선,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멀티미디어
22,452,134원

- 환경 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그래픽,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환경 정보 홍보
339,393,815원

- 후원자 및 대중에 최신 환경 정보와 캠페인 성과, 서포터즈 활동 등을 알리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제작해 웹사이트,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소통했습니다.
- 환경 과학 자료를 제작해 기후 비상사태와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대중에 알렸습니다.

2.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총액 803,385,509원

지역 비폭력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204,321,065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 기획 및 실행, 예산 관리 및 법률 평가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설계 및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트레이닝 및 장비
186,306,033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도구, 장비 및 안전 장비의 구매, 유지보수 및 개발을 담당합니다.

액션, 자원활동가 관리 및 창고
412,758,411원

-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창고를 운영합니다. (대여비, 관리, 보수)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2,808,397,934원

지역 조사 및 연구
183,278,226원

- 위성 이미지와 항공 사진을 활용한 조사, 수중 드론 활용 등 첨단 연구 및 조사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환경 사고와 기상이변을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 환경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을 목격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 덕분에 기름 유출, 삼림 벌채, 산업 오염과 같은 사건을 문서화하고 보고하여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 여러 유명 환경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층적인 분석과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제공해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환경 연구 역량 개발
251,272,707원

- 장소 스카우트,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지식 공유 및 위기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고급 인지과학 적용
2,054,642,558원

- 복합위기의 시대에 활동하는 캠페이너들이 마주한 장벽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12개국에서 '분노 모니터'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폭염, 대기오염, 정치 위기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어촌 지역에 회복력 지도를 적용해 적응 전략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 세르비아의 NGO 환경개발센터(Environment Development Center)와 협력해 지역사회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생에너지학회(Society of Renewable Energy)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 채널 코크비사(Kokbisa)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들의 에너지 전환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자문 - 공공 정책 및 지속 가능한 금융
319,204,443원

- 환경 캠페인과 관련해, 정부 및 유엔의 관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정치계 주요 인사와 연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 활발하게 금융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발언자로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략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합니다.